

# 하도급대금 직접지급확대 부작용 우려

## 하도급 업체의 재정 능력 부족으로 오히려 체불 가능성 증가 위험성 커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 확대가 오히려 하도급 대금 체불을 양산할 우려가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공사 대금 체불이 실질적으로 하도급 업체와 건설 근로자와 자재장비업자 간에서 주로 발생되는데 하도급 업체의 재정 능력 부족으로 오히려 하도급 대금 체불 가능성이 증가한다는 설명이다.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4월 7일 2016년도 공공 발주 공사부터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을 확대 추진하며 이를 위해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또 기획재정부는 '전자 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지난 3월 16일부터 4월 25일까지 입법 예고 하면서 조달청 '하도급 지급이'와 같은 건설공사 대금 지급관리 시스템을 통해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을 추진하고 있다.

문제는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은 건설 공사 계약이라는 사인(私人)간의 계약에서 당사자가 아닌 자에 의한 대금 지급체제로서 계약상 당사자 일방 권리를 부당하게 제약할 수 있다

는 것이다.

즉, 사인간 거래 관계에 대한 과도한 개입이 우려된다.

특히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은 원도급자의 파산과 같은 명백한 사유가 있을때 '건설 산업 기본법'과 '하도급법'을 통해 제한적으로 실시하는 제도인데, 공정위와 기재부가 모든 건설 공사에 적용하려고해 관련 법령의 취지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사적자치의 원칙에서도 위반된다.

게다가 발주자로부터 건설 공사 전 단계에 대한 책임을 위임받은 원도급자들의 경우 하도급자, 건설근로자 및 자재 장비업자 등에 대한 통제가 어려워져 공사 관리의 비효율이 초래된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들 조달청 '하도급 지급이' 같은 공사대금 지급관리 시스템은 개별 건설업체의 현장별 자금 흐름과 공사 단가 등 건설 경영 및 생산 활동의 핵심사항을 노출시킬 수 있다.

무엇보다도 특정한 계좌에 입금하도록 해 입금시 발주자 승인 등 구체적으로 대금지급 형태 및 시행을 강제하는 것은 민간 기업 활동에 정부가 과도하게 개입하는 규제로 설

명된다.

실제로 대한건설협회가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하도급 대금 확대가 건설 사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시장 상황에 부적합하다(67.9%) ▲발주자 및 원도급자의 업무 부담이 증가할 것이다(44.2%) ▲대금 체불 관행이 더욱 커질 우려가 있다(24.2%) 등으로 나타났다.

건설업계는 "하도급 대금 체불의 근본적 개선방안으로 하도급 대금 미지급, 지연 지급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한 감시 시스템을 확보하고 불공정 행위 거래 행위 발생을 사전에 예방해야 한다"면서 "하도급 대금 지급 관련 대책들이 규제로 작용해 효율적인 건설 실 공사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자율적 경영 활동을 저해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업계는 "발주자(공사 감독관 등)의 관리감독 기능 강화 및 부실업체의 지속적인 퇴출 강화 활동이 이뤄질때 하도급 대금체불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것이다"고 덧붙였다.

/신광영기자



금융시장 패닉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브렉시트) 국민 투표에 결과가 탈퇴로 확정되면서 코스피 지수가 전 거래일보다 27.72포인트(1.42%) 빠진 1981.12로 장을 마감했다

## 한국-EU FTA 재협상 가능성 대두

### 보상금 요구 주장도 제기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가 현실화함에 따라 한-영, 한-EU 간 무역 관계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한-EU FTA 체결은 EU에 영국이 포함된 것을 전제로 체결했기 때문에 EU의 시장 규모의 축소로 우리가 재협상을 통해 보상금을 요구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

2일 영국의 EU 탈퇴(브렉시트)를 묻는 국민투표가 가결되면서 우리나라와 EU 간의 무역 관계에도 영향이 미칠 전망이다.

대외경제연구원은 "브렉시트가 현실화하기까지 2년의 유예기간이 있으며 이 기간 동안에는 현재의 단일 시장체제가 유지된다"면서도 "2년 안에 협상이 완료되지 못할 경우,

우리나라와의 경제 관계에서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실제 브렉시트로 우리나라는 FTA를 포함 영국과 EU와의 경제관계를 광범위하게 재정립해야 한다.

연구기관들은 브렉시트로 ▲한-EU FTA의 재협상 시 보상문제 ▲원산지 누락의 허용 여부 ▲한-영 FTA의 협상 등을 제시했다.

한-EU FTA는 EU에 영국이 포함된 것을 전제로 해 체결한 협정이기 때문에 영국의 탈퇴로 줄어드는 EU의 경제규모와 시장규모에 맞게 재협상을 해야한다는 것이다.

앞서 1985년 그르만도의 EU 탈퇴로, 유럽공동체 회원국들은 EFTA와 FTA 협상을 할 때 보상을 하거나 그 이전의 동인한 혜택을 부여하는 것으로 협상을 진행했다.

/인진수기자

## 이스타항공, 상반기 핫노선 이벤트

이스타항공(대표 김정식)이 2016 상반기 핫(HOT) 노선 결산 특집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스타항공은 2016년 상반기를 마무리 지으며 가장 인기 있던 4개 노선(인천-나리타, 지난 타이페이 / 김포-제주)에 대한 특가 항공권을 제공한다.

또한 4개 노선 중 가장 뜨거웠던 노선 맵 쿼즈를 통해, 정답을 맞춘 고객들을 추첨하여 해당 노선 여행 가이드북을 제공한다.

27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행사를 통해, 각 노선별 편도 총액운임 기준 인천-도쿄 10만8,000원 ~, 인천-지난 8만2,000원 ~, 인천-타이페이 8만2,000원 ~, 김포-제주 1만5,900원부터 제공되며, 각 노선별 이용 가능한 탑승 기간은 다르다.

인천-도쿄, 인천-지난(제주) 노선은 7월1일~7월31일, 김포-제주 노선 9월1일~9월30일, 인천-타이페이 노선은 10월1일~10월29일 기간 중 이용 가능한 특가 항공운임이 제공되며, 이스타항공 홈페이지(www.istarjet.com)와 모바일 웹(앱)에서 제공된다.

이스타항공 관계자는 "2016 상반기 결산을 통해 고객들의 감사한 마음에 보답하고자 이번 행사를 기획했다"며 "상반기를 잘 마무리 할 수 있음에 감사드리고 다가올 하반기에도 고객들이 짜릿한 가격으로 소중한 추억을 만들 수 있도록 저비용항공사의 다양한 운임을 제공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신광영기자

### 전북 선도기업 (주)올릭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

세계 최고 수준의 색재현 LED 갖는 제품개발에 성공

전북도 선도기업인 (주)올릭스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전북테크노파크에 따르면 2016 국제 LED&OLED 산업 신기술 개발 우수업체 선정대회에서 전라북도 선도기업인 (주)올릭스가 '박물관, 미술관, 의료용 LED소자, 모듈 및 조명제품 구현기술'을 출품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을 수여했다.

(주)올릭스는 지난 2013년 전라북도 선도기업으로 선정됐다.

(주)올릭스는 고연속 및 고효율 LED 패키지를 생산하기 위한 신기술 개발을 시작으로 세계최고수준의 연색지수(색재현을 표시하는 지수)를 갖는 제품개발에 성공했다.

이번 기술은 (주)올릭스가 보유하고 있는 독자적인 기술로서 90% 이상 99%까지의 높은 색재현성을 발현한다. 특히 이러한 기술력을 인정받아 2007년부터 일본으로 수출하고 있다.

전북테크노파크 백두옥 원장은 "전라북도 선도기업이 지역 경제성장과 수출 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 전북경제 발전에 견인차 역할을 하고, 많은 중소기업의 롤모델 기업이 될 수 있도록 전라북도와 함께 더욱 체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16 국제 LED&OLED 전사회는 올해로 14회째며 LED & OLED 조 명부터 장비, 부품, 소재업체 및 연구기관에 이르기까지 총 15개국 270개사 600개 부스 규모로 진행됐다.

/신광영기자

## 정부, 올 성장률 3.1→2.8%로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3.1%에서 2.8%로 하향조정할 예정이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24일 국회에서 '당정간담회'를 열고 오는 28일 발표할 2016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정부는 올해 성장률 전망치 하향조정을 공식화했다.

김광림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결과 브리핑에서 "정부가 (올해 예산이) 이대로 집행된다면 금년도 성장률은 3% 보다 떨어질 것 같다고 한다"며 "2.8%의 성장률이 예측되고 내년에 3% 성장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당초 정부는 올해 초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을 3.1%로 전망했다.

성장률 전망치가 2% 대로 떨어지면서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재정보강 논의도 공식화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는 28일 발표하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추경 편성 여부를 담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김 의장은 "전반 양론이 있었지만 추경을 해야 한다는데 더 무게감이 실렸다"며 "(유 부총리는) 다양한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어 규모는 말하기 어렵다고 했다"고 말했다.

다만 당정은 국회에서 신속하게 처리되지 않을 경우 추경의 효과가 떨어진다는 점에 우려감을 표했다.

유 부총리는 "추경예산안의 국회 처리가 8월로 넘어간다면 본예산보다 불과 3~4개월 빨라지는 것이어서 추경 무용론 제기될 수 있다"며 "차년 추경이 7월18일 통과됐는데 그 전에 된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생각해 볼 것"이라고 밝혔다.

/인진수기자

## 한국산업단지공단 전북지역본부 중국·필리핀 173만불 수출성과

한국산업단지공단 전북지역본부(본부장 임종인)는 지난 19일부터 25일까지 미니플러스터 회원기업을 대상으로 '중국 및 필리핀 시장 진출을 위한 해외시장개척단'을 파견해 173만불의 수출성과를 창출했다.

이번 해외시장개척단 파견기업은 (주)월드비전코리아, (주)지앤엘테크, (주)아르텍, (주)해성테크, (주)대정, (주)호민산업, (주)에이피에스, (주)우성이앤에스, 피스테아(주), (주)풍림파마텍 등 9개 기업이다.

참가기업은 현지제조사협회 방문, 견학, 1:1수출상담회 등을 통해 중국과 필리핀 시장진출을 위한 초석을 닦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해외시장개척단은 지속적인 해외시장의 문을 두드린 결과 수출계약 3건, 173만불의 수출성과를 창출했다.

특히 군산자유무역 미니플러스터 회원사인 (주)풍림파마텍은 115만불의 총판매액을 체결하는 등의 큰 성과를 이뤘다.

시장개척단 김경오 팀장은 "산업단지 수출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현지기업을 발굴하고 매칭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권산=문정근기자

## 11번가, 'Mnet 음악이용권' 100원에 판매

11번가가 엠넷닷컴과 함께 Mnet 음악이용권'을 100원에 판매한다.

11번가는 오는 30일까지 Mnet 1개월 음악이용권(정가 1만900원)을 단돈 100원에 선착순 판매한다고 24일 밝

혔다.

음악이용권은 1개월 간 Mnet 전국 음악감상, 30곡 다운로드를 비롯해 Mnet TV 실시간보기, 다시보기 혜택을 모두 누릴 수 있다. 7일간 판매에

/인진수기자

정인 총 수량은 5만장이다. '쇼미더머니 시즌5'와의 콜라보레이션 마케팅도 실시한다. '쇼미더머니5'에 출연 중인 프로듀서팀 중 선호하는 팀에 투표하는 고객을 추첨해 '힙스 스테이크 식사권', 등을 제공한다.

/인진수기자

Jeonju Crime Victim Support Center

###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 "당신이 웃는 내일을 희망합니다"

국번없이  
**1577-1295**

전화상담, 사이버상담, 방문상담, 예약상담 등  
매주 월요일 ~ 금요일 (연말연시와 공휴일 제외)  
상담시간 : 10:00~17:00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범죄피해의 고통을 상담지원, 법률, 의료, 환경개선 지원 등을 통해 범죄가 있기 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전주지방경찰청**  
(사)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 (063) 276-8804, 8828  
전주시 덕진구 시평로 25(덕진동 1가) 전주지방경찰청 신관 152호  
\*홈페이지 : www.jvs.or.kr \*전자우편 : jvs@hanmail.net